

J.S. 밀의 自由主義論⁽¹⁾

金 完 鎭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상의 대표자인 J.S.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1. 序 論

근대 경제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자유주의일 것이다. 평등,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의 주요 이념들이 모두 자유주의와의 관련속에서만 그 위치가 분명해 질 수 있다는 점은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경제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근대사상이다. 물론 그 개인주의적 근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체계적인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과 합리주의철학의 배경하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신흥 자본가 계급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출현하였다. 즉, 절대왕권과 특권계급의 전횡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신흥 자본가 계급의 혁명적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이념은 경제적 이해에 바탕을 둔 정치적 운동의 범위를 넘어서 정치철학 및 도덕철학적으로 심화되면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으로 대표되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고전적 자유주의로 정립되었다.

J.S.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자유주의의 전통은 J.S. 밀 한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다고 해도 될 만큼, 영국의 자유주의 역사에 있어서 밀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버틀랜드 러셀은 모든 영

(1) 이 논문은 연암문화재단의 해외학술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국사람은 自由主義者(liberal)라고 말한 바 있다(Wood(1911, p. 58) 참조). 개인적 자유에 대한 열광적인 신봉은 영국인들의 근본적인 생활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주의적 신념은 뿌리깊은 것이다. 영국인들에게 자유주의는 정치적인 이념일 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생활신조가 되어 있다. 이러한 영국인의 태도가 J.S. 밀의 모든 저작에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自由論』은 그 대표적인 저작이다. 『自由論』은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는 웅변적인 선언이다. 또한 밀은 19세기 영국의 모든 자유주의 운동 — 공리주의, 고전파 경제학, 개혁주의, 보편투표제도, 여성참정권, 비례대표제 — 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 철학적 배경으로서의 功利主義는 쾌락과 고통의 단순한 수용자로서의 인간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J.S. 밀은 이러한 인간관의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시민적 자유의 필요성을 새롭게 옹호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명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 것이 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라고 불리워진다. 또 한편으로 19세기에 들어 오면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계급갈등이 심화되고 분배적 정의와 빈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밀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원리인 自由放任(laissez faire)의 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였다. 밀은 경제를 생산과 분배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생산은 자연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에 분배는 의도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고전파 경제학의 원리는 생산의 영역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분배제도는 사회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밀은 계급대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밀은 그 자신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주의에 심취하였다. 물론 밀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쟁의 원리를 끝까지 옹호하였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주의자라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밀은 자유방임과 개인주의로부터 분배적 정의와 빈곤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변형된 자유주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형된 자유주의는 新自由主義라 불리워졌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의 하나인 L.T. 홉하우스는 밀에 대하여 ‘舊自由主義로부터 新自由主義까지 모두를 包括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였다(Hobhouse(1911, p. 58) 참조).

이 논문에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 그 양자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서 밀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自由至上主義(libertarianism)의 단초도 제공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즉, 밀은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갖는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 경향을 간파하고 그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밀은 자유주의의 진정한 사도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주장은 현대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밀의 사상이 현재의 우리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밀은 동양과 유럽을 비교하면서 근대에 들어와 동양이 침체하게 된 원인을 자유의 결핍과 그로 인한 관습의 독재에서 찾았다. 밀은 개인적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개성을 발전시키고 독창성을 개발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이룩하였으나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 걸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혁신의 배경으로서 밀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밀의 자유주의 사상이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2. 古典的 自由主義의 成立

서양에서 자유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운동과 지적인 전통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전적으로 근대적 현상으로서 그 근원은 17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없다(Gray(1986, p. ix) 참조). 17세기에 들어 오면서, 비로소 개인주의적 사회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홉스와 대륙의 스피노자가 그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그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들은 자유와 합리성이 사회의 기본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습적 정치권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기보호본능에 기초한 정치권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개인주의적 입장에 서있었다. 그들에 의하면 개인의 자기보존욕구가 모든 정의와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국가권력은 이러한 자기보존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정당하게 된다. 그러나 홉스는 개인의 무제한한 자유가 허용되는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 이러한 자연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위주의적 정부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스피노자는 개인적 자유를 최선의 삶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하고 그 자체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에

서 보다 자유주의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 갔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진정한 선구자는 존 로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자유주의적 전망이 처음으로 일관된 지적 전통으로 체계화된 것은 존 로크의 저서, 『市民政府에 관한 두 論文』에 의해서였다. 영국사회는 이미 그 법률적 전통, 즉, 재산법과 가족제도에 있어서 과거 수세기 동안 개인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의 기초위에서 로크는 제한된 정부에 의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크에게 있어서 市民的 自由는 무엇보다도 재산권을 의미했고, 정부의 존재이유는 바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의 핵심은 어떠한 정치권력도 소유자의 동의없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재산권 옹호론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독립은 법에 의해 보호된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다는 개념은 로크 이래로 영국 자유주의의 기본적 특징중의 하나가 되었다.

로크는 성서의 인간관에 입각하여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의 획득과 자유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인류전체에게 세상을 공유물로 주셨다. 그러나 …… 그것은 공유물로 남겨 두어서, 경작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인간들이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었다[Locke(1965, p. 333): Arblaster(1984)에서 재인용].

토지의 한 부분에 자신의 노동을 가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경작지로 만들었다면 그 경작지의 산출물과 함께 그 사람의 노동에 의해 변화된 토지도 그 사람의 사유물이 된다는 것이다. 공유지인 토지가 어떻게 사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로크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일관된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로크의 주장을 계승해서 보다 일관된 이론으로 발전시킨 所有權利論(entitlement theory)이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에 의해 제시되었다[Nozick(1974) 참조]. 노직은 정의의 원칙이 소유권리의 획득과 양도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체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주장이 근거없는 것으로 비판하였다.⁽²⁾ 따라서 노직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역할을

(2) 소유권리의 획득과 양도에 관한 절차 이외에 노직은 과거의 잘못된 결과를 교정하는 교정적 정의를 언급하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많은 소유권이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획득되었음을 노직은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소유권에 대한 시정의 한 방도로서의 분배적 정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노직은 인정한다. 공리주의나 롤즈의 차등원칙 등의 분배원리를 이와 같은 교정적 정의의 한 원칙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노직은 말하고 있다.

부정하고 소유권리의 획득과 양도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데 국한된 最小國家(minimal state)만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였다. 물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논리의 극단까지 물고 감으로써 노직은 일체의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自由至上主義(libertarianism)의 원칙을 도출하였던 것이다.

로크는 철학에 있어서는 경험론과 인식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고, 정치이론, 종교사상, 경제사상, 심리학, 교육이론 등의 다방면에 걸쳐 지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이론가이기도 하지만, 그 관심의 대상이 넓은 만큼 비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미일관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 점은 그의 정치사상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치밀한 학문적 사색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적 원칙을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발전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사회철학자와 경제학자들이었다. 이들의 사회이론과 경제이론은 단순히 역사적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사회에 관한 과학을 정립하려는 이러한 열망은 위대한 회의론자라 할 수 있는 데이비드 흄의 저작들에 잘 나타나 있다.

흄은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는 달리 인간오성의 불완전성이야말로 자유주의적 질서가 요청되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저서, 『人間本性論』에서 흄은 정의의 원칙이 출현하게 되는 원인으로, 제한된 자비심, 지성의 결핍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을 열거한다. 정의의 기본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근본적인 자연법칙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즉, 안정적인 소유의 법칙, 소유권의 양도에 관한 법칙, 그리고 약속의 이행에 관한 법칙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어떤 합리적인 체계로부터 연역되거나 혹은 고안된 것이 아니라 자기이익에 따르는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행동이 상호작용한 결과 나타난 自生的인 秩序의 產物이다. 보통법체계, 시장, 화폐제도 등은 사람들의 의도적인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의감, 자비심 등의 도덕관념도 역시 오랜기간동안에 걸쳐 축적된 自然스러운 感情(sentiment)으로서 사회의 균형과 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흄은 생각하였다.

흄의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를 완성한 것은 아담 스미스였다. 스미스는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거래를 바탕으로 한 시장기구가 어떻게 경제문제를 해결해 가는가에 대해 관찰한 끝에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사회

원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즉 각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방임할 때 그 결과는 불안정과 파멸이 아니라 조화와 경제성장이 극대화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고전파 경제학의 근본명제인 自由放任(Laissez Faire)主義의 核心이다. 시장기구의 기능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통찰력이 바로 현대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대 미시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을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현대적인 용어로 재기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아담 스미스는 현대 경제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의 아이디어는 아담 스미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사회전체의 공적인 선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17세기 영국에 보편화되어 있었다. 1620년대에 토마스 먼(Thomas Mun)은 벌써 상인이 자기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존 홀(John Hall)은 1654년 이타심은 오히려 유해하며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Arblaster(1984, p. 151) 참조]. 버나드 맨드빌(Bernard Mandeville)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적인 미덕이 오히려 경제의 동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그의 주장을 “個人的 惡德은 公共의 利益”으로 요약하였다. 개인의 사치와 낭비는 수요를 유발하여 생산을 촉진시키므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도와 폭력과 같은 범죄조차도 그 범죄로 인해 경찰과 법관 등의 고용을 증대시키므로 경제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빈곤에 대해서는 빈곤으로 인한 굶주림이 노동자를 태만하지않고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생산을 감소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맨드빌은 가장 확실한 부의 원천은 수많은 부지런한 빈민이라고 주장하였다[Arblaster(1984, p. 175) 참조]. 맨드빌의 주장은 극단적이고 냉소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그 핵심은 이미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아담 스미스는 方法論的 個人主義를 확립했다. 사회는 원자적인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모든 사회적 현상은 개인들의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형성되고 제도가 창출되므로 경제체제나 제도 등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이후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도덕철학, 정치학 등의 분야의 연구방법론으로 확대되었다. 스미스에게는 사회생활을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중

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영역은 끊임없이 상호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일한 설명 원리에 의해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 시민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經濟的 自由를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상정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는 재산권과 방해받지않는 거래의 자유를 포함한다. 국가의 역할은 재산권을 보호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 자유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아담 스미스 이래 경제학은 시장기구가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 또한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경제학은 또한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함도 밝혀내었다. 그러한 경우는 시장의 실패라고 불리우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공해와 같은 외부성이 존재하거나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국방등과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으므로 정부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는가하는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시장의 실패가 아닌 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최대한의 효율이 보장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셋째,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의 정당성을 권리에서 찾지 않고 功利主義的 根據에서 도출해 내었다.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면 그 결과가 사회의 진보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공리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의 공리주의는 벤담의 그것과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벤담은 개인의 행위동기로서의 쾌락과 고통을 수량화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쾌락의 합계를 극대화하는 행동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쾌락극대화원칙에 따라 모든 도덕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과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옳바른 도덕원칙과 사회제도를 추상적 원칙으로부터 연역해 낼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회질서를 인간의 의도적 계획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효용의 원칙에 어긋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를 부정할 수 있는 반자유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게 된다. 반면에 아담 스미스는 시장과 같은 경제질서를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自生的인 秩序로 보았다. 옳과 아담 스미스에게

공통되는 이러한 통찰이 하이에크에 계승되어 고전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전개를 보게 된다. 하이에크는 사회제도와 질서를 의도되고 계획된 것과 의도되지 않고 자연적 과정을 거쳐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을 구분하고, 경제질서의 핵심이 되는 시장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시장은 복잡한 거대체계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은 부분적인 정보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라고 하더라도 시장기구에 간섭하여 직접 자원 배분에 간섭하게 되면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고전파 경제학에서 그 정점을 이룬 고전적 자유주의는 벤담과 제임스 밀 등의 공리주의에 기초한 급진적인 합리주의에 의해 자유주의의 핵심요소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공리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의 하나는, 효용의 원칙하에서는 노예제라도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정의론을 전개한 존 롤즈는 개인의 권리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익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공리주의를 비판하였다. 공리주의는 개인적 권리를 포함한 자유주의의 재원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밀 당시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다. J.S. 밀은 쾌락 혹은 행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공리주의를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의 공리주의에 관한 장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밀의 공리주의가 과연 이러한 비판을 극복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심지어는 특히 자유의 원칙을 정당화할 때 밀의 공리주의가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밀이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적인 영역의 보호라는 고전적 자유주의 근본사상을 새로운 사고체계에 의해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3. 밀의 『自由論』

시민적 자유에 대한 밀의 견해는 그의 저서 『自由論』에 요약되어 있다. 이 절에서 우리는 『自由論』에 나타난 밀의 사상을 검토함으로써 밀이 어떻게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밀은 『自由論』 서문에서 자신의 자유의 원칙을, 效用(utility)과 독립적인 추상적인 권리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효용에 호소하여 정당화할 것을 먼저 밝힘으로써 공리주의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효용은 “진보적 존재인 인간의 恒久的 利益에

基礎한 廣義의 效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ill(1859, p. 79)). 이것은 이미 벤담의 공리주의와는 달리 아담 스미스의 結果論(consequentialism)的인 功利主義에 가까운 것이다.

밀은 또한 벤담의 공리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행복의 요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을 확립하였다. 밀에 의하면 인간은 단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보다는 고차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단 그것을 자각한 후에는 그 기능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행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Mill(1861, p. 8)]. 따라서 단순한 감각의 충족보다는, 지능, 감정, 상상력, 그리고 도덕감정의 충족이 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다. 즉 어떤 종류의 쾌락은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른 쾌락보다 더 우월하고 바람직하며 가치있는 것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인간은 개성의 개발과 자기발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밀은 『自由論』 제3장 “福祉의 한 要素로서의 個別性”에서 개별성의 개발이야말로 자기발전의 핵심요소로서 인간의 인간됨과 진정한 행복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하고 있다. 밀에 의하면 개별성은 독특한 개성, 자발성, 자율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개별성은 우선 독특한 개성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가진 사람을 개성을 가졌다고 말한다. 개인적 욕구와 충동이 강렬할 때 사람은 내면적 힘의 성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인간이다. 이러한 충동을 억제하는 강제력에 순종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능력은 쇠퇴하고 고사하게 되며, 강렬한 소망이나 타고난 쾌락을 잃게 되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의견이나 감정을 갖지 못하게 된다” [Mill(1859, p. 129)]. 느낌, 사고 행위의 방식을 관습에 따라 받아들인 사람은 개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하는 자율적인 삶에 의해서만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발전하게 된다고 밀은 주장한다. “육체적 힘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도덕적 힘은 사용할 때만 향상된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따라서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능의 작동을 요청하지 않는다” [Mill(1859, p. 126)]. 따라서 개별성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생활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며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적인 삶 그 자체가 인간을 가치있게 한다.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인간존재로서의 비교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이다. 설령 집을 짓고, 곡식을 재배하고, 전투를 치르고, 재판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건립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계에 의해서 — 사람의 형태를 한 자동기계에 의해 — 행해질 수 있다고 하

더라도, 현재 문명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연적인 재능이 적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러한 자동기계로 대체된다면 그 손실은 상당할 것이다. 인간본성은,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해내도록 모형에 따라 설계된 기계가 아니라, 자신을 생명체로 만드는 내면적 힘의 성향에 따라서 모든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요구하는 나무와 같다(Mill(1859, p. 127)).

개별성은 인간성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개별성이 개발된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즉 개별성은 사람을 창조적이 되게 한다.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상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발전은 개별성이 조장되어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경향들이 창조될 때 일어난다. 개별성이 억압될 때 문명도 정체하거나 쇠퇴하게 된다고 밀은 주장한다. 밀은 유럽과 동양을 비교하면서, 동양이 정체하게 된 근본 원인을 장기간에 걸친 관습의 독재에 의한 개별성과 다양성의 결여에서 찾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자세히 논할 것이다.

밀에 의하면 개별성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것은 억압적인 정치권력이 아니라 社會的 壓制이다. “왜냐 하면 사회적 압제는 보통 정치적 탄압처럼 그렇게 극심한 처벌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도피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세부까지 훨씬 깊숙히 개입하여, 인간의 영혼 그 자체를 노예화하기 때문이다”(Mill(1859, p. 73)). 이러한 사회적 압제는 다수의 횡포에 의한 법적, 물리적 강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 관습이나 공공여론일 수도 있다. 밀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 정치적 탄압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압제에 의한 강제가 개별성을 억압할 것을 경계하였다. 이것이 『自由論』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호에 불과한 것을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은 가장 무책임한 태도로, 그들이 혹평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쾌락이나 편의를 무시한 채 자기 자신들의 기호만을 고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혐오하는 행위를 자신에 대한 해악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감정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고 분개한다”(Mill(1859, p. 152)). 이러한 대중의 압력이 어떻게 인간을 위축시키고 관습의 노예로 만드는가에 대해 밀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시대에는 상류계층에서 하류계층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적대적인 검열의 감시하에 살고 있다. 타인과 관련된 일뿐 아니라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가족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지 않는다. 즉 나는 무엇을 선호하는가? 혹은 나의 성격과 기질에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또 혹은 무엇이 나의 내부에 있

는 가장 고귀한 최상의 자질을 잘 활용하게 하고 성장하고 융성하게 하는가? 대신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즉, 내 처지에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나와 같은 지위와 재정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엇을 하는가? 혹은 (더 나쁜 질문은) 나보다 우월한 지위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자신의 성향에 적합한 것보다는 관습적인 것을 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것 이외에는 어떤 성향을 갖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정신 그 자체가 굴레에 예속되어 있다. 즉,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할 때조차도 관습에 따를 것을 먼저 생각한다. 그들은 군중속에서 살며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범위 안에서만 선택을 행한다. 독특한 취미나 기이한 행동은 범죄와 같이 기피된다. 자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은 결과, 따라야 할 본성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은 쇠퇴하고 고사하게 되며, 강렬한 소망이나 타고난 쾌락을 잃게 되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의견이나 감정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인간본성의 바람직한 상태인가 아닌가?(Mill(1859, p. 129))

이러한 慣習의 獨裁로부터 개별성을 보호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유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밀은 말한다. 밀에게 있어서 자유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영위하는 생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밀의 진술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가 개인을 강제와 통제의 방법으로 — 그 사용수단이 법적 제재의 형태를 띤 물리적 강제력이거나 공공여론의 도덕적인 강제이거나간에 — 다루는 형태를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매우 단순한 한 원칙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 원칙이란,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들 중 어느 한 개인의 행동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방어의 목적뿐이라는 것이다. 권력이 문명 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본인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것은 그의 자유에 간섭할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유리하다거나, 그를 더 행복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거나 옳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을 충고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간청하는 좋은 이유들이지만, 그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악을 끼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강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의 행위 중에서 사회에 책임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기자신에 관해서,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관해서 주권자

이다[Mill(1859, p. 78)].

밀은 개인의 행위를 ‘오직 自身에게만 關聯되는 行爲’(self-regarding action)와 ‘他人에게 關係된 行爲’(other-regarding action)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두 종류의 행위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밀의 이론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영역을 분리해 낼 수가 없다면, 밀의 자유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생활에서 그러한 행동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자기 관련행동이란 타인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행동인데, 인간은 사회속에서 고립된 개인이 아니므로 그러한 행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Donner(1991, p. 189) 참조).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他人의 利害(interest)에 미치는 영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실질적인 이해에 영향이 없으면 자기관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Gray(1983, p. 49) 참조).

어떤 행동이 타인의 이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이 아니고 또한 단지 개연성만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정도의 불편은 인간 자유의 더 큰 선을 위하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밀은 주장한다(Mill(1859, p. 150)). 이 구절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자기관련행위와 타인관련행위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불변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은 자신의 개별성을 계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회는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私的인 行動領域(privacy)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물론 권리란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효용의 원칙에 의해 도출된 권리를 의미한다. 밀은 그러한 개별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타인에게 미치지 않는 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무엇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밀의 주장의 요체는 사회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 최대한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의 정신은 자신의 견해와 행동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객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경청하는 인격적 미덕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정치권력과 대중은 항상 자신의 선호를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 그것이 자신에게 해악이 된다고 간주하고 비난한다. “대중은 개인적 행위에 간섭할 때 자신과 다른 행위와 감정의 사악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밀은 “대중이 자신의 기호에 도덕적 법칙의 성격을 부여한 사례”들로서, 종교적

박해, 안식일 준수법, 주류판매금지법, 과소비금지법안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자기발전과 개별성을 이상으로 하는 인간본성에 기초하여 인격적 자유의 원리를 밀만큼 설득력있게 제시한 사상가는 아마도 그 이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다. 밀은 흄과 아담 스미스 등에 의해 제시된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벤담의 제한된 인간관에 기초한 급진적 합리주의를 극복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인 이상적 인간상을 지향함으로써 서양정신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자유의 이상을 훌륭히 그려 내었다. 『自由論』이 사상사에서 고전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에도 그 생생한 현실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폭넓고 균형잡힌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상한 정신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어떻게 사회의 진보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밀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한 사회사상가도 드물 것이다. 인격적 자유의 원칙은 그러한 고상한 정신이 사회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4. 經濟的 自由主義

밀은 기본적으로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끝까지 신봉하였다. 그의 저서, 『政治經濟學原理』는 고전과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유재산권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자유경쟁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임의 근본원칙을 고수하였다. 모든 면에서 밀은 고전학과 경제학자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전학과 경제학이 발견해 낸 과학적 진리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밀은 한편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 밀이 주목한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극심한 빈곤과 자본가계급의 이기심이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극심한 빈곤과 이기심에 따르는 정신적인 황폐화는 인간의 자기발전을 저해하며 따라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인격적 자유는 단지 소극적으로 무간섭의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밀 자신 자유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에 관한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Berger(1984, p. 229) 참조].

밀 이후 19세기 말엽에 들어오면서, 영국사회에 제기된 문제는 개인적 자유보다는 국민적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연히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은 제약과 강제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개념으로부터 ‘행하거나 즐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행하고 즐길 수 있는 적극적인 힘이나 능력’⁽³⁾으로서의 積極的 自由概念으로 이행해 갔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새 경향을 ‘新自由主義’라 부른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로서 T.H. 그린, T. 홉하우스를 들 수 있다. J.M. 케인즈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의 福祉國家論은 신자유주의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밀은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부차적이거나 일시적인 과도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는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관심을 표명하고 경청하였으며 사회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밀의 이론을 절충주의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자에 대한 경청과 수용은 그가 『自由論』에서 역설한 열린 자세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이론을 과감히 수정하는 진지한 그의 노력은 그의 정신의 높이와 지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의 이론은 그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적인 이상에 대한 선구적인 것이 되었다.

생산의 영역과는 달리, 재산권과 분배의 원칙은 전적으로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밀은 “사회의 추상적 정의와 일반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Mill(1994, p. 379))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주의적 대안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밀은 먼저 현존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사유재산제도를 검토하였다. 밀은 사유재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그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제 자체의 결함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밀이 지적하는 것은 재산권의 개념 자체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재산권은 절대불가침의 권리라기보다는 社會的 選擇의 결과임을 밀은 강조한다. 밀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문제점들은 사유재산제의 폐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개선될 있는 것이다. 밀에 의하면 사유재산의 목적은 원래 노동과 절제의 과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현재의 불평등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의 산물은 거의 노력에 반비례하여 배분되는 것 같다. 가장 큰 몫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 가장 힘든 일을 한 사람은 생필품도

(3) T.H. Green의 정의로서 Arblaster(1984, p 286)에서 재인용.

연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한다” [Mill(1965, p. 207)]. 밀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동의하면서도 그들의 사유재산제에 대한 비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상태의 사유재산제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유재산제를 최선의 형태의 공산주의와 비교해야 한다. 사유재산의 원리는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공정하게 검토된 적이 없다” [Mill(1965, p. 207)]. 또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은 과장과 경제분석상의 오류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밀은 주장한다.

경쟁이 가져오는 폐단에 대해 밀은 사회주의자와 공감하면서도,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 대해서 밀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밀은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의 경쟁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노동자간의 경쟁으로 인해 저임금이 결과되고, 생산자들간의 경쟁이 파산과 공황을 가져온다는 비판에 대해 밀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가장 세련된 사람들조차도 경쟁의 작용에 관해서 매우 불완전하고 일면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 그들은 경쟁이 낮은 가격과 가치의 원인일 뿐 아니라 높은 가격과 가치의 원인도 됨을 잊고 있다. 즉, 노동과 상품의 구매자들도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경쟁에 의해 노동과 생산물의 가격이 낮게 유지된다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경쟁이다[Mill(1994, p. 403)].

그 폐단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서 경쟁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물론 경쟁에는 불편함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쟁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에 시기와 적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이 그 나름의 고유한 폐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 사회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오류는 인간의 생래의 게으름, 소극성, 습관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경향, 한번 선택하면 그것을 지속시키려는 경향등을 과소평가 내지 간과하고 있다. …… 경쟁은 진보를 위한 최선의 자극제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아니 가까운 장래까지도, 진보를 위해 불가결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습관을 바꾸어 새로운 생산방식을 택하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Mill(1965, pp. 794-79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밀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근원을 사유재산제도와 경쟁적 시장기구에서 찾고 두 제도의 폐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자

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었다. 밀이 문제로 삼은 자본주의의 해악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道德的 次元의 問題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공공의 정신보다는 이기적인 동기가 지배적이고, “서로 찢고 밟고 치고 받는 生活樣式”(Mill(1965, p. 113))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가능한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 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마치 자신의 종이나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양계급이 좁은 이해관계에 얽매어 있다. 밀은 공동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러한 정신적인 경향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주의적 개혁은 보다 심각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개인의 개성이나 기호를 발전시킬 여지가 기존의 어느 사회보다도 현저히 축소될 것을 밀은 우려했다. 과연 사회주의하에서, “개별성을 위한 피난처가 남아 있을 것인가? 여론이 폭군의 명에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개인이 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결과, 또 개개인이 사회전체에 의해 감독되는 결과, 모든 사람의 사상, 감정, 행동들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되지 않을까? 잘 길들여진 획일성이 나타나지 않을까?”(Mill(1965, p. 209)) 하는 것이 밀의 우려하는 바 였다. 이후 전개된 사회주의에서 이러한 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은 밀의 지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밀의 자유주의가 갖는 현실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밀은 사유재산제도를 보다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공정한 형태로 개선함으로써 불평등을 상당한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서 밀은 상속세의 강화와 토지등의 자연자원의 국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개선된 사유재산제도와 경쟁적 시장기구하에서, 노동계급이 점차 계몽되고 협동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사이의 수직적인 복종관계는 점차 줄어들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동하는 관계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밀은 예상하였다. 자본가 계급도 자신과 적대적인 계급과 일상적으로 상대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협동적인 관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밀은 주장한다(Mill(1994, p. 140) 참조).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속에서 공공의 정신, 관용의 정신, 그리고 진정한 정의와 평등의 정신이 배양될 것이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 스스로의 협동에 의해 운영되는 조합체가 가장 지배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밀은 1948년 프랑스의 노동자혁명시기에 보여진 노동자들의 지성과 자제력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Mill(1994, p. 147-148) 참조). 이와 같이 점진적인 진화를 통해 대립과 이기심대신에 協同과 公共精神이 지배적인 사회가 출현할 것을 밀은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教育을

통한 自己改善勢力이라고 밀은 강조한다. 노동자 계급의 장래와 그와 함께 인류의 미래는 노동자 계급이 도덕적, 지적 성숙을 이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밀은 말한다. 다시 말해서 밀은 제도의 개혁보다는 精神의 改革이 앞서야 한다고 믿었다. 개개인의 도덕적 힘과 이성이 사회적 악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원천임을 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밀은 새로운 사상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시대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변화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유경제체제를 확고히 신뢰하고 이 체제안에서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는 또한 제도개혁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였으며 정신적, 도덕적 개혁을 강조하였다.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협력관계가 점차 발전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5. 밀의 自由主義 思想의 現代的 意義

밀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핵심은 그의 인간관에 있다. 밀 자신이 그의 『自由論』에서 인용하고 있는 흄볼트의 다음과 같은 생각은 바로 밀 자신의 견해와 같다.

인간의 목표는, 애매모호하고 일시적인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불변의 이성의 명령에 의해 지시된 인간의 목표는 인간의 능력을 최고도로 또 가장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완전하고 일관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특히 동료인간에게 영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목표는 능력있고 발전하는 개별성이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은 자유와 환경의 다양성이다. 이 두 조건의 결합으로부터 개인적인 활력과 풍부한 다양성이 나타나며 또한 그 결과 독창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Mill(1859, p. 125)에서 재인용].

이러한 고상한 인간관으로부터 자율적인 삶의 요구와 그를 보장하는 자유의 필요성을 밀은 도출하고 있다. 밀은 또한 정치적인 탄압과 전제가 사라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자유가 말살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비상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을 가지고 예리하게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를 제시하였다. 밀의 주장이 현대에도 타당성을 갖는 것은 그러한 위험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정도의 민주화를 이룬 우리 나라 사회에서 밀의 자유사상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식민지상태로부터 해방되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극심

한 빈곤과 냉전체제하에서 처음부터 부패하고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한 독재를 경험하였으며 끈질긴 민주화 투쟁의 결과 최근에 와서야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 정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권위주의적으로 개인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모든 면에 간섭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정치적인 탄압은 사라졌지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관료와 정치가들의 시민생활에 대한 무차별적인 간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시민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민주화된 정부는 여론의 향방에 대단히 민감하다. 그러나 여론의 힘을 이용하여 정부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험은 대단히 크다. 밀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輿論의 橫暴 혹은 多數의 橫暴였다. 이러한 여론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밀이 주장한 자유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민적 합의로서 도출해야 할 원칙, 즉 정부와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간섭의 한계에 관한 추상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밀이 여론의 횡포와 마찬가지로 우려한 것은 慣習의 獨裁였다. 관습이란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재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과 관행에 따르지 않으면 이단시하고 탄압할 때 개인은 개성을 잃게 되고 수동적이 되며 활력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이 활력을 잃게 되면 사회는 진보할 수 없게 된다고 밀은 보았다. 흥미롭게도 동양사회의 정체원인을 밀은 관습의 독재로 인한 개별성의 억압에서 찾고 있다. 동양에서는 “관습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관이다. 관습에 순응하는 것이 정의이고 권리이다.” 그 결과 동양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장엄한 궁전과 화려한 사원을 가지고 있을 때, 숲속을 방황하던 조상들을 가졌지만 관습과 함께 자유와 진보의 지배도 받았던 서양인들에게 피지배자의 신세로 전락하였다.”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높은 문화를 가졌으나 계속 선두를 지키지 못하고 정체된 것은, “모든 국민들을 똑같이 만들고, 동일한 격률과 법칙에 의해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Mill(1959, pp. 138-140) 참조]. 밀은, 중국이 교육과 정치체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유럽은 공공여론에 의해 획일화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만약 개별성이 이에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면, 유럽도 제이의 중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밀이 중국에 관해 지적한 조직적인 획일화의 문제는 현재의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치와 전통이 파괴되고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함으로써 일어나는

혼란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방과 교류가 가속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환경에 접할 기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밀이 우려하는 획일적 사회가 나타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양성이 증대되고 개성과 창조성이 계발됨으로써 진보가 가속화되리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오히려 가능하게 된다. 개방과 세계화, 자유화가 요청되는 당위성을 밀의 자유론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사회에서 획일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사상과 다른 사상을 용납하지 않으며,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보다는 힘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견해보다는 상대방의 견해에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는 모두 창조적인 지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토론문화의 부재, 획일화되고 일방적인 교육, 사상과 언론의 자유의 제한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 반대되는 모든 의견을 경청하여 그중 옳은 것은 수용하는 개방적인 정신과, 또 한편으로는 여론과 관습의 독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또 가지도록 교육하는 사회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밀의 자유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지성의 용기와 개방적 정신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밀의 사회주의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밀은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뿌리깊은 이기심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사회주의자들과 공감하였지만, 사회주의적 개혁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사유재산제도와 자유경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대부분 과장과 잘못된 경제분석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는 자유시장기구와 이상적인 사유재산제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이 체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작동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의 구상은 그 작동가능성이 회의적이거나 혹은 개인의 개별성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밀은 사회주의적 실험이 시도될 필요는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는 그러나 그 실험이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했다. 밀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노동자계급이 교육받고 각성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불평등한 지배, 복종관계는 점차 사라지고,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평등한 협동관계가 성립하거나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협동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출현하고 점차 지배적인 형태가 될 것을 예상하였다. 이러한 변혁의 가능성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계몽되고 지적, 도덕적으로 성숙하느냐에 달

려있다고 밀은 생각했다.

이러한 밀의 예상은 대체로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밀의 우려대로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를 만들어냈으며 경제적으로는 작동불능함이 들어났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정치적 활동에 의해 자본가계급의 양보를 이끌어 내었으며, 주식의 소유분산을 통해 노동자 소유의 기업들이 확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밀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회주의적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밀이 예상했던 개혁은 실제로 자본주의체제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어떤 경제체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 기업의 소유구조, 공공부문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밀에게서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원칙에 대해 市民的 合議를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합의를 실천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도덕적 덕성을 교육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밀은 자유의 원칙이야말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副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8

팩시: (02)888-4454

參 考 文 獻

노명식(1994):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조순 외(1992): 『스튜어트 밀 연구』, 민음사.

Arblaster, A. (1984):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Basil Blackwell.

Barry, N. (1987): *On Classical Liberalism and Libertarianism*, St. Martin's Press.

Berger, F.R. (1984):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Th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Stuart Mi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lin, I. (1969):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Donner, W. (1991): *The Liberal Self: John Stuart Mill'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Gray, J. (1983): *Mill on Liberty: A Def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_____ (1986): *Liberalism*, Open University Press.

Hobhouse, L.T. (1911): *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Manning, D. J.(1976): *Liberalism*, London, J. M. Dent & Sons

Mill, J.S. (1859): *On Liberty*, in Everyman' s Library edition (1993).

_____ (1861): *Utilitarianism*, in Everyman' s Library edition (1993).

_____ (1965):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_____ (1994):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Chapters on Soc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Wood, J.C. (ed.)(1987): *John Stuart Mill: Critical Assessments*, Volume 1, Croom Helm.